

2015년 사목지침서 해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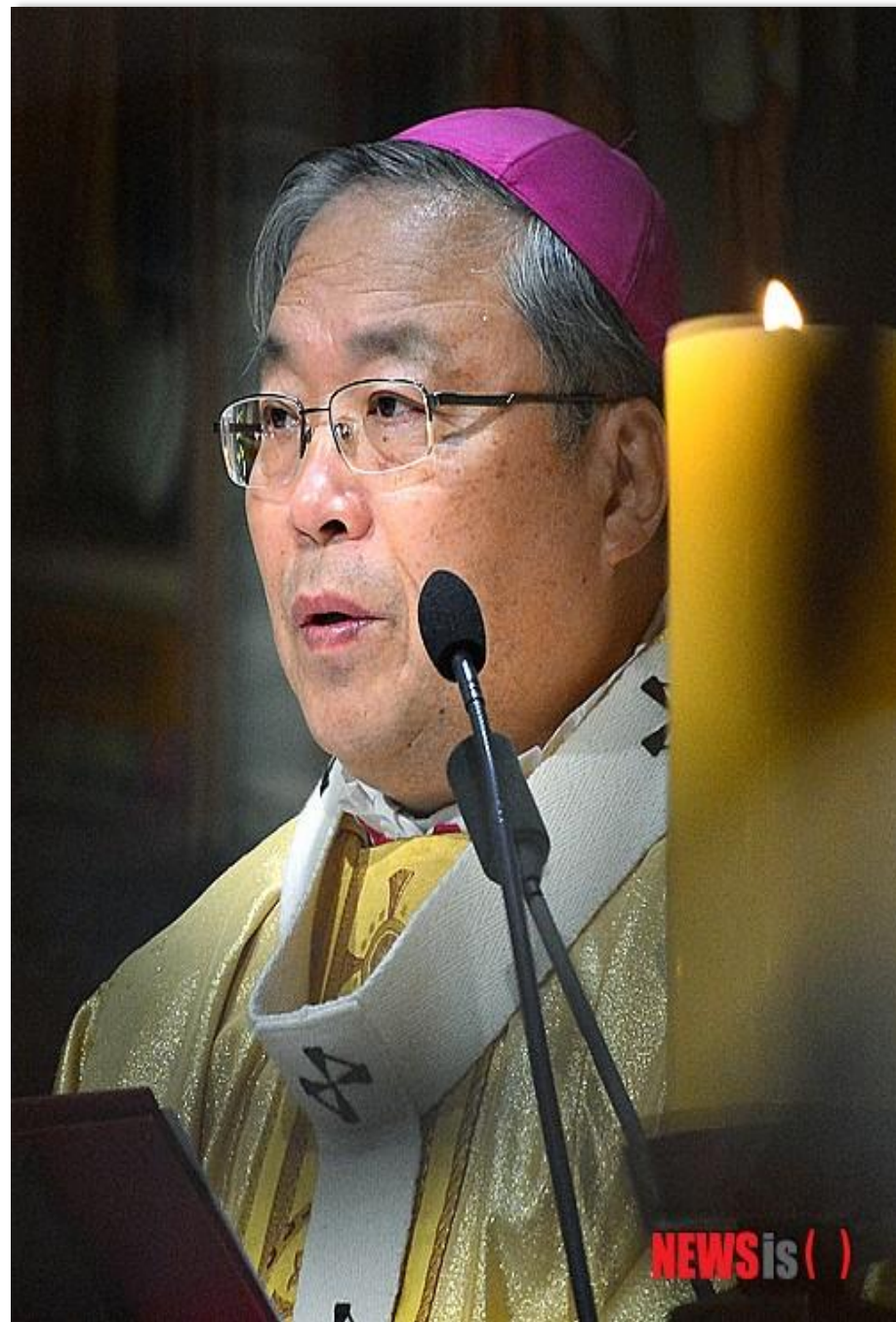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

사도들과 신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2015년도 교구 사목교서 해설 목차

1. 서론

2020까지의 장기 정책 주제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2. 2015년 사목교서 주제 -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

3. 2015년 사목교서 성구 - 사도들과 신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4)

4. 구성과 내용

2014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구 지침을 본당과 지구, 수도회 및 각 교회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회사목국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써 성부와의 일치 안에 머무르셨고, 기도의 힘으로 성부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힘을 길어내어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상을 견디셨습니다. 기도 중에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빈곤과 취약함을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복음의 기쁨, 210항)

사회사목국

1. 본당 사회사목분과는 시혜적인 이웃 돕기를 넘어 지구 또는 지역차원에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사회사목분과로 발전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지구 사회사목 담당신부님들께서는 지구 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시설들과 연대해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도와 사랑의 봉사실천과 전문성이 어우러지는 사회사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도로 주님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회교리를 실천의 원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인교육 담당신부님들께서는 가능하면 구역장, 반장, 총회장 연수와 회정 때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해주시고, 교육 시 사회교리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에서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이 사회의 고통 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그들과의 영적 연대를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Caritas Seoul 실천사항

1. 기도

- 1) 기도의 방식에도 재해석하여 내용중심의 공감, 나눔, 쌍방향, 직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2) 각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고려되고, 비신자를 배려할 수 있는 형태의 기도문 기도모임을 해야 합니다.
- 3) 비신자 직원들에게 가톨릭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2. 가톨릭사회복지 Network 구축과 내실화

- 1) 정보와 자원공유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자.
- 2) 본당과 사회복지 시설과의 관계정립
지구별 모임을 정례화 하고, 정례화가 어려우면 권역별(동,중,서) 모임을 하자
- 3) 각 지구 혹은 권역 내 멘토-멘티 관계형성을 통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자.